

## ■ 시상식 자료집

# 제 1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



일시 | 2003년 4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후원 | 소망화장품 



## 목 차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심사 총평	5
[발제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회	9

### 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강북 구세군 교회	17
대구신암교회	19
대길교회	21
도림교회	23
목민교회	27
봉동시민교회	29
산음교회	31
안성성결교회	33
양무리교회	35
예산짚풀교회	37
[부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신청양식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심사 총평

조흥식(기윤실 사회복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 선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소망화장품 강석창 사장님 및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간이 짧고 준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9개 교단의 총 24개 교회가 접수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평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심사과정

전체 심사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8명의 심사위원이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1교회 당 3인의 위원들이 심사하여 평균치를 조정하여 점수를 매겼습니다. 원래 서류 심사의 목적은 이미 밝혀진 선정기준 10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수상 대상자 9개 교회 수의 2배수인 18개 후보교회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회의 결과 이번 행사가 첫 시상행사라는 점과, 접수된 교회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 18개 교회만 추리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24개 교회 전체를 모두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24개 교회 전체에 대한 서류 심사 점수(50점 만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24개 교회에 대한 실사를 행한 후 점수(50점 만점)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때 실사 점수는 서류 내용의 진실성(30점 만점), 교회사회복지 담당 교역자나 담당 실무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10점 만점), 교회의 사

랑실천 여건과 분위기(10점 만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수 부여는 방문한 심사위원 평가 70%, 기윤실 실무자 평가 30% 점수를 합산 반영하였습니다.

3단계는 1단계 서류 심사점수와 2단계 실사 점수를 합한 점수(100점 만점)로 4개 영역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4개 영역 구분은 접수된 교회의 지역별, 교인 수별 변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4개 영역은 대도시 교회(큰 교회), 대도시 교회(작은 교회), 중소도시 교회, 농촌 교회 등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접수된 24개 교회는 대도시 교회(큰 교회) 7개, 대도시 교회(작은 교회) 5개, 중소도시 교회 6개, 농촌 교회 6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들 4개 영역에 따른 합계 점수 우선 순위를 정한 결과, 대도시 교회(큰 교회) 3개, 대도시 교회(작은 교회) 2개, 중소도시 교회 1개, 농촌 교회 3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유의웅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도림교회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고문을 맡고 계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는 위의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두고서 명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6개 교단 총무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 수합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9개 교회(특별상 1개 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 2. 심사평

첫째, 1단계 서류 심사와 관련하여 1)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은 지역사회 문제 및 주민들의 욕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주로 보았는데, 몇몇 교회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지역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2)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를 보면, 대예배실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3)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를 보면, 대다수 교회들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평가까지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4)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면, 선정된 교회들은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 정도를 보면, 선정된 교회들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상 지역주민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욕구조사 등 주민의 욕구파악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

다. 6) 평가 방법의 활용도를 보면,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평가 실시와 함께, 평가 내용을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활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7)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보면, 대교회의 경우는 전체 일반헌금 가운데 10% 이상, 작은 교회의 경우 40% 이상을 사용하며, 특별헌금 형식의 예산도 별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8)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보면, 모든 교회 교인들이 교회사회복지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9)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의 경우는 교회 창립 때부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교회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서 일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시설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실사를 한 경우, 접수된 서류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으며,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회복지 담당 교역자나 담당 실무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번 접수된 교회 가운데, 몇몇 교회는 교회 자체가 특수선교나 특수복지사업 중심의 교회로서 대다수 복지대상자들이 교인이며,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교회는 서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실사과정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상제도를 만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대다수 일반 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얼마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사랑실천을 해 나가느냐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상에는 매우 안타깝지만 이들 교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에 제외된 교회처럼 주로 전문 교회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을 위한 시상영역을 별도로 만들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 3. 마무리 글

24개 교회를 대상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각 교회마다 너무나 훌륭한 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 훌륭한 교회들이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음을 심사위원들과 명예심사위원들 모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깝게 선정되지 못한 교회들이 내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선정사업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심사위원들 모두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선정사업을 발전시켜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격려, 후원하며, 교회 시설의 개방운동,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교회사회복지를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리는데 헌신할 것을 주님과 목사님께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모든 교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위원]

강영실 위원(한국성서대 교수), 김동배 위원(연세대 교수), 김현호 위원(다우리교회 담임목사), 두준기 위원(휴먼테크기술사무소 대표), 오세란 위원(서울기독대 교수), 이만동 위원(백석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영규 위원(우리음식이야기 대표이사), 조흥식 위원(서울대 교수),

[명예심사위원]

김남선 사관(구세군) / 류태선 목사(예장 통합) / 서병하 장로(기성) / 윤지환 목사(예장 고신) / 이재영 목사(예장 합동) / 이재호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 <발제문>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회

강영실(기윤실 사회복지위원,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교회가 성장한 속도 또는 교세를 확장한 정도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정도로 전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괄목할 만한 교회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교회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사회적 기능과 역할수행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한국교회의 위기로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교회가 믿음을 기초로 한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축되어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교회의 유지에 큰 비중을 두었던 부분에서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의 본질적 실천이다. 사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초기에는 교회가 과감하게 사회봉사와 구제 등의 사회사업에 힘을 기울였었고, 기독교가 실천하는 종교로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이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시사하는 것으로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마태복음 25:35~36에 기록된 실천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기능을 선교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랑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사회사업을 하는 교회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많은 교회가 복음전도의 한 형태로써 또는 수단으로써 사회사업을 하거나 교회 출석성도에 제한을 둔 구제사업을 하는 등에 그치는 정도이며, 사회에 대한 실천적 행위에는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본래 기능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교회의 기능회복과 사회의 책임의식, 그에 따른 실천방향을 고민하면서 지역사회를 더불어 섬기는 교회의 상(像)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로써 사회적 비난여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2. 교회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Moberg은 교회가 사회화, 신분부여, 친교, 사회연대, 사회안정, 사회통제, 사회개혁, 사회복지, 자선 등 9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적 역할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회적 기능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교회는 지역사회의 기관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행위 등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Moberg의 교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교회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써 사회가 혼란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교회가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상태로 사회를 되돌리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는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상호간에 섬김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경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사회규범도 자유의지에 따라 지키게 될 때, 교회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넷째,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강조될 때, 교회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회복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Moberg은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주체 또는 국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의 중요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종교와 사회는 오랫동안 상호보완적관계속에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본 회퍼가 제시한 전도 (Kerygma), 교제 (Koinonia), 봉사와 구제 (Diakonia) 등 3가지 교회의 본질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의 이웃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상은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할 3가지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한 세상에 대해 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둔 교회가 지역사회안에서 이웃을 찾아다니며, 지역사회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항상 찾고, 그 요구에 응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개발 또는 발전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곧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형태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기독교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신앙공동체를 의미한다.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매개로 한 교회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중 하나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 또한 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의 행위를 하는 교회의 사회참여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 **1) 건강한 교회**

최근 들어 다수의 교회들이 새 시대의 목회비전으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교회를 소개할 때도 건강한 교회임을 강조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교회”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하는 것으로 교회끼리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 한편 교회는 건강한 것인지 병이든 것인지 느끼지 못하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쉽게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의미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교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성도의 불만족스러움이나 목회현장에서의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의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건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이나 허약뿐만 아니라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 즉 영적인 건강과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안한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건강한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① 건강한 것은 항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건강하지 못함을 느끼게 될 때이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생명력이 약화되어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활동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여야 한다.

②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과 나눔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없는 교회생활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③ 건강한 교회는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보완의 작용을 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각 성원들이 서로 돌보고 섬김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또는 영적 건강을 통해 지역사회내 교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④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의 결합과 연속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외된 사람의 사회화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생활속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기념하는 날 (출생, 결혼, 장례 등)을 위한 의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

사는 교회성장이었고, 개교회를 중심으로 성장을 제일로 삼으면서 교회의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회성장에 투입하였다. 그에 따라 교인수는 증가하고, 교회건물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신드림'은 교회의 본질에는 소홀하고, 교회가 지역사회내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가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교회는 사회에 대해 배타적이었고, 사회를 외면하고 성장에만 치중을 하면서 점차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사회 또한 교회를 비판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교회주변에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묻게까지 되었다. 교회가 위치해 있는 주변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거나, 교회에서 나오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회와 지역사회는 소원해 질 수 밖에 없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건축을 하게 되면 달가워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사회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형성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주변의 지역사회는 교회의 이웃이 되며 교회는 교회주변의 지역사회를 이웃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가 지역사회인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그를 해결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 들어 교회 내부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었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성장을 일차적인 교회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사회복지의 차원을 고려하여 세워지는 교회도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사회적 역할을 일부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교회는 지역사회주민들의 삶에 무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일 것이다. 즉, 지금까지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고 사회를 향해 열려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고하고, 사회를 위한 분배와 환원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① 사회는 매우 다원화해 가고 있다. 그럴수록 교회는 사회를 향해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교회의 관심사가 지역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지역사회의 관심사가 교회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주민들이 교회를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교회’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욕구과약을 위해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나눔의 실천력을 증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거나 협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개발프로그램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③ 개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이웃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 시도해 본다. 그에 따라 낭비되는 재정과 계획의 포기 등은 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개교회중심이다. 이는 교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교회 이기주의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간의 교류와 연합을 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교단을 떠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 서로 경쟁교회로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4. 맺는말

이제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하나의 주제로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독교운동을 전개하며, 교회사회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Reinhold Niebuhr는 그의 저서 “사회사업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Social Work, 1945)에서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키운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책임을 포기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화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니이버의 말을 빌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한 한국교회일지라도 지역사회와 유리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성장만이 강조되어진 교회는 참된 의미의 교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상(像)을 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구현화시킬 사명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를 향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과제보다 왜 하는가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선정교회 소개





## ■ 강북 구세군 교회



-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2동 791-1509
- ▷ 담임교역자 : 박희범 사관
- ▷ 교회 창립일 : 1973년 10월 25일
- ▷ 교단 : 구세군
- ▷ 교인 수 : 100명
- ▷ 홈페이지 : <http://gangbuk.or.kr>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장학금 지급, 결식아동지원사업(도시락, 밑반찬, 아동캠프제공), 도서관화교실, 상담, 노인대학(민요부르기, 컴퓨터, 교양강좌, 노래교실, 한글교실), 경로식당, 인터넷카페운영, 동아리자조모임(연극, 수화, 밴드), 자원봉사자교육, 취업·부업훈련(한식조리, 제과제빵), 자활사업, 물리치료실, 경로잔치, 효도관광

강북 구세군 교회는 서울의 북부지역인 북한산과 도봉산이 만나 수려한 병풍을 드리우고 삼각산의 위용이 살아있는 서울안의 작은 달동네인 미아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30년전 강북교회가 세워져 지역사회와 회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실현하며 지역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복합선교의 장을 여는 교회이다. 강북교회의 존재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서울 미아동 지역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중에 하나이며 대표적인 달동네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



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기도하다가 1990년 12월에 사회복지에 뜻을 두고 지역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우게 되었다. 이후 교회와 복지관은 지역을 위해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상담, 사회교육, 결식아동사업, 자활사업, 저소득층 지원, 무료급식, 이동목욕, 노인대학, 학교사회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북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비전이 있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미래로 향하는 교회’라는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Top down system이 아닌 Middle up down

networking의 '호환기능'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역동적인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

13년 동안 나뉠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2002년에는 교회와 복지관 주변에 구세군길(1길-5길)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부족하지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은 교회에 속하지만 강북교회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종합 시스템'을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 대구신암교회



-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3동 220-20번지
- ▷ 담임교역자 : 윤의근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45년10월14일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1500명
- ▷ 홈페이지 : [www.shinam.or.kr](http://www.shinam.or.kr)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대구아름다운학교(성인기초교육과정), 신암상록대학, 신암토요봉사학교, 청소년문화센터, 사랑의 나눔 장터, 사랑의 불씨 모으기 운동

대구신암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로 1945년 10월 14일에 창립한 교회이다. 8·15 해방 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역사적 교회인 동시에 6·25 전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교회 주변에 정착하였을 때 그들을 돌보며 친구가 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교회였다. 세상을 위해 세워진 세상 속의 교회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988년 3월에 『신암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신암평생교육원』은 교육의 기회를 잃은 이들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한 교회의 부설기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인 비문해자(문맹자)들을 돕는 사회교육기관이다. 교육은 곧 삶이요 성장이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성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어반을 비롯한 영어반, 일어반, 한자반 등 성인기초교육 과정을 종합하여 ‘대구아름다운학교’를 부속학교로 개교하고, 1998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신암상록대학’을 개교했으며, 이어 ‘신암어린이집’과 청소년을 위한 ‘신암토요봉사학교’, ‘신암청소년문화센터’를 개설했다.



『신암평생교육원』의 교육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의 시설 제공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료나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한국문해교육기관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전국 문해교육전



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그 동안의 교육 경험을 살려 성인을 위한 국어교육 교재(전 10권)와 한문, 수학 교재(3권)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공적을 인정받아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한 ‘사회통합증진을 위한 2002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신암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기 위해 주일에는 성도들의 예배와 교회학교 교육으로 교회 건물을 활용하고, 평일에는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의 공간으로 항상 열려져 있다. 올해(2003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가난한 독거 노인들을 위한 『만나푸드뱅크』를 설립하여 교인들과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의 후원으로 매주 금요일에 60여 명의 노인들에게 사랑의 건강식을 배달하고 있다. 그 외 동대구역이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웃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선교 카페 ‘푸른초장’을 만들어 교인들 뿐 아니라 이웃 주님을 위한 작은 음악회와 영화를 상영하는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 대길교회



-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465-7
- ▷ 담임교역자 : 박현식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56년 11월 4일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 교인 수 : 1000명
- ▷ 홈페이지 : www.daegil.net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리라복지원 방문 지원 및 봉사, 정신지체시설 지원, 독거노인 무료급식, 불우이웃 성금 및 식량지원, 주차장 및 교회시설 개방, 대길사회복지재단설립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구원을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대길교회는 영등포 신길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신앙고백과 정통보수신학 위에 견고히 서 가는 교회입니다. 설립이후 반세기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한국역사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성장과 고난을 반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확장을 위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길교회는 담임목사 박현식 목사와 15명의 사역자들과 22명의 장로와 천여명의 성도들과 천 여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인 박현식 목사는 영문학을 전공한 후 총신 신대원과 미국 리버티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길교회는 그의 목회철학과 비전에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세기 전에 지역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이곳에 대길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대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 대길교회는 세계선교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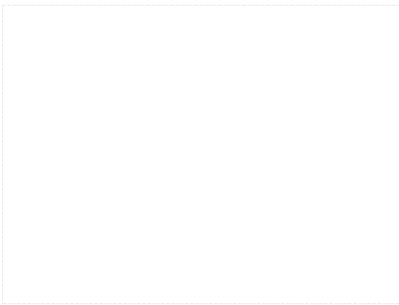
인도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매년 의료사역을 통해 개안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학교재단 설립 등 중국, 중앙아시아 등 땅 끝까지 복음전파를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LMTC(평신도선교사훈련과정)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재정의 상당부분을 선교에 사용하여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길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건전한 신앙과 신학 위에서 말씀을 강해하며, 대길학교, 스폰서 대학, 청지기 학교, 제자훈련 등 말씀을 공부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전 성도가 묵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도록 훈련하며 성장해 가는 교회입니다.

\* 대길교회는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 청년, 주일학교 등 다음세대를 준비하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건강해지며 나아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인적, 제도적 리노베이션을 계속함으로써 교회의 건강함과 새로움을 날마다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 대길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간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도간의 깊은 사랑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는 교회입니다. 다락방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체험하며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 대길교회는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해 오던 이웃을 향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 재산중 17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떡과 복음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공자인 목사를 초빙하여 전문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무료급식, 문화강좌, 자원봉사 활동 등 다채로운 복지활동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 도림교회



-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도림2동 205-24
- ▷ 담임교역자 : 유위웅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26년 4월 1일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5700명
- ▷ 홈페이지 : www.dori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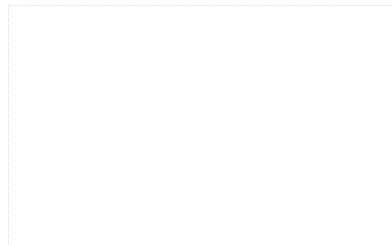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인학교, 한글학교, 공부방, 경로식당, 어르신잔치, 어린이극축제, 어머니교실, 도서관, 지역신문, 미용봉사, 청소년봉사학교, 사랑의 저금통, 결연프로그램, 지역 대청소, 재활용품 및 농산물 직거래, 어린이집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봉사 및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교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81년에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올해로 설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에 봉사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어린이집

1965년 3월 도림유치원으로 설립인가가 난 도림어린이집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유아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교육과 심신의 보호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민주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1981년 5월 영림 신용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림 신용협동조합은 지역 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알고 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생각하던 중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림교회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1,500여명이고 총 자산액은 68억 7천여만원이다.

### 3) 소암장학회

소암장학회는 1974년 11월 유병관 원로 목사가 회사한 퇴직금 100만원의 장학기금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고 그분의 호를 따서 '소암'장학회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소암장학회는 2003년도 1학기로 55기를 맞으며 총 1,223명에게 762,330,000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소암장학회의 총 자산은 2003년 2월 현재 480,287,672원이다.

### 4) 노인학교



올해로 제25기를 맞이하는 도림노인학교는 노령화 사회의 특징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어르신들의 여가문제를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나아가 교양 및 신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노인학

교는 13명의 교사와 150명의 어르신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반별모임, 성경이야기, 5분 건강정보, 체조, 노래부르기, 특별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 4회의 소풍 및 견학이 있으며, 그 외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있다.

### 5) 문화교실

문화교실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은 물론, 무미건조한 삶에 활력을 불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문화교실은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실과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극 축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큰잔치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연 등이 있다.

### 6) 한글학교



도림한글학교는 비문해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배움의 장과 글에 대한 눈뜨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삶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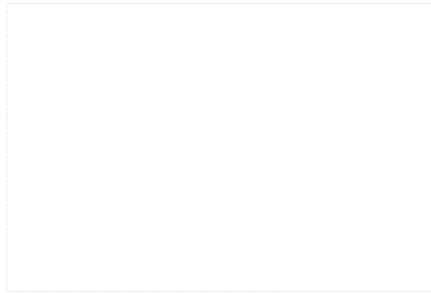
현재 한글학교는 9명의 교사와 140명의 학생이 매주 화, 목요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져 수업을 하고 있으며, 연 2회의 소풍도 계획되어 있다.

#### 7) 지역신문

‘모랫말이야기’는 도림동 지역 주민들의 살아가는 정다운 이야기를 담은 정보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역신문이다. 현재 지역신문은 ‘모랫말이야기’라는 제호를 가지고 매월 첫째주에 3,500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4명의 기획위원과 10명의 기사가 봉사하고 있다.

#### 8) 도서관

도림도서관은 문화의 부재 지역인 도림동에 무료로 도서를 대출함은 물론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교회와 지역 내에 올바른 독서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왕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도서관은 14,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인 및 지역주민 6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 9) 공부방

도림공부방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지도는 물론 보호와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방과후 방치된 아이들의 학습부진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다. 도림공부방은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전인교육과 학습성적의 향상 및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부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5명 정원에 담임제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교사와 7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공부하고 있다.

#### 10) 경로식당

도림경로식당은 지역 내에서 혼자 생활하시거나 맞벌이 자녀들로 인해 낮에 혼자서 점심을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간과하기 쉬운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문제의 해결은 물론 같은 연령의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시간의 충족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경로식당은 97명이 등록하여 1일 평균 60여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2명의 주방봉사자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도시락배달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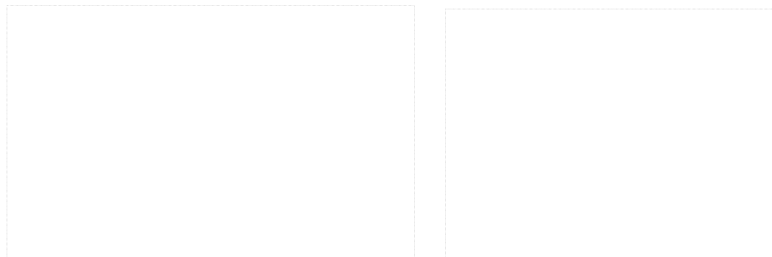
#### 11) 나눔사업

나눔사업은 지역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눔사업에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가정들을 후원해 주는 결연프로그램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미용봉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및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결연프로그램은 교회의 각 남녀선교회 및 청년부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사랑의 저금통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절기인 사순절과 대강절에 배부하여 부활절과 성탄절에 봉헌하고 있다.

## 12) 녹색살림터

녹색살림터는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파괴되고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생명운동 프로그램이다. 녹색살림터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잘 가꾸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으로 재활용품인 재생화장지 및 재생비누 판매사업, 유기농산물 및 저농약 농산물 직거래, 다양한 행사를 통한 환경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녹색살림터는 기독교환경연대와 연계하여 환경통신강좌를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첫째 주 환경주일을 제정하여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 목민교회

-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204번지
- ▷ 담임교역자 : 김동엽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72년 6월 18일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5800명
- ▷ 홈페이지 : www.mokmin.org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경로당활성화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구제사업, 노인대학 사업, 이·미용서비스사업, 복지관위탁운영사업, 각종센터운영사업(장례비스, 치매단기, 고령자취업, 신월복지센터 등)

목민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목민목회의 정신아래 성도들이 눈물어린 기도, 땀 흘리는 봉사, 피를 쏟는 헌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에 소속된 교회로서 1972년 6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양천구 신정3동 신정네거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담임목사님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감명을 받고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불신주민들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민(牧民)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목민목회를 결심하고 三七七信(교회 예산의 30%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70%는 성도들을 위하여)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천사원, 소망노인의 집, 등을 방문하여 세탁, 청소, 김장하기, 반찬 만들어주기, 이미용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 아이টে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수명의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역노인들을 향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내에 있는 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



원, 부대시설, 재정, 인력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순기능을 다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담사업, 건강체조 서비스, 노래교실, 취미활동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환경미화, 연중행사, 의료서비스(건강체조, 건강증진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물리치료기기 대여서비스 등) 경로당교? 下獮? 지역자원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민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민노인대학을 매주 토요일 운영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좋

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부흥 성장한 교회로 그간 꾸준히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역복지관 2곳(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노인종합복지관)과 센터 4곳(양천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장례서비스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신월노인복지센터)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양 복지관은 6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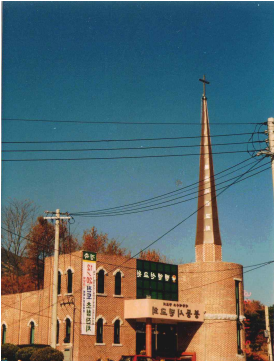


는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하여 구제사업과 경로당활성화사업, 밑반찬제작 전달사업, 바자회를 통하여 이웃돕기와 그늘진 곳에서 일하시는 청소원, 파출소, 동사무소, 소망노인의 집, 희망의 집(노숙자)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용 사업, 가정봉사원 활동, 자원봉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교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선교사를 단독으로 4곳에 파송하여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몽골에 울란바트르 대학, 러시아에 자유대학, 콩고에 희망초등학교와 방송국 운영, 탄자니아에 초,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 ■ 봉동시민교회



▷ 위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194-10

▷ 담임교역자 : 김희중 목사

▷ 교회 창립일 : 1998년 5월 21일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 교인 수 : 100명

▷ 홈페이지 : <http://noinbokji.or.kr>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재가노인복지(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식사용 밀반찬 배달(매주 83명), 봉동노인대학운영(2학년 167명, 1학년 33명), 화요노인교실(한글, 게이트볼, 손공예, 노래, 시조, 풍물 반 운영), 지역노인문화축제(봉동은빛문화축제) 개최

봉동시민교회는 IMF한파에 온 나라가 쑥쑥 얼어붙던 1997년 10월에 한 성도가 임야 200평을 교회부지로 기증하고 서울시민교회가 개척을 위한 교회당 건축비를 지원하여 공사를 시작함으로 태동되었고 1998년 5월 21일 교회당 준공과 함께 개척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김희중 목사 가정과 3가정 5명의 성도)

IMF는 인근의 전주침단과학단지 조성과 인구 2만 명 유치 계획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했고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은 비 주거지역 외딴곳에 세워진 교회의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섰다.

이런 상황에서 개척자인 김 목사는 평소 목회철학대로 제자훈련과 교회의 사회봉사 사역을 준비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 해 나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3년 차인 2001년에는 교회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봉동재가노인복지센터(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 6월에는 2단계로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측면에서 【봉동노인대학】을 개교

하였으며 2002년 11월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1-3세대가 함께 하는 봉동은빛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큰 호평을 듣게 되었다.

봉동시민교회는 사역의 1차 목표를 지역사회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 회복】에 두고 있다. 이것은 목회의 회복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또 모든 사회봉사 사역의 기초는 제자훈련에 두고 있다. 성경 말씀이 보여 주는 교회의 본질과 지상교회의 사명 앞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왜 이곳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 목회 철학이 제자훈련에 전력하게 했고 훈련된 제자의 삶의 비전은 교회의 사회봉사라는 다음과 같은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 ◆ 봉동제가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 : 지역의 독거노인 80명
- ◆ 봉동노인대학 운영 (1.2학년 200명)
- ◆ 봉동은빛문화축제 : 지역주민과 같이하는 노인문화축제
- ◆ 봉동시민교회가 이끌고 있는 자원봉사단
  - 봉동노인대학 은빛봉사단
  - 벨엘 어머니 봉사단
  - 봉동기능인 봉사단 (창단준비 진행 중)
  - 천원후원 일천가정운동 (현재 670명의 후원가정)
  - 봉동 적십자 여성 봉사단 (격주로 봉사 협력)
  - 전북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노인대학 강사 파송)
- ◆ 봉동노인대학 사단법인 추진과 지역 평생교육관운영을 통한 노인 『초등학교 과정개설』을 위해 준비 진행 중
- ◆ 『이웃사랑 노인사랑』 회보 발행 (계간)



## ■ 산음교회



-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342-4
- ▷ 담임교역자 : 김태성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 교인 수 : 30명
-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이·미용봉사, 침·한방진료, 장학사업, 재가복지, 거택보호(무지개 공동체)

산음교회는 27년의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농촌의 교회입니다. 현재 목회자는 7대의 목회자로서 14년째 산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창립될 당시의 교인수는 할머니들로서 구성된 10여명의 성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음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촌교회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자립이 불가능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촌목회는 단기적으로는 승부가 불가능 하지만, 목회자가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사역을 위해 젊음과 시간을 들이고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목회를 계획한다면 농촌이나 도시나 상관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사역을 위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 결단의 희생적 재물이 필요합니다.

산음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우선 애·경사에 참여하여 봉투보내기,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낙후된 지역을 위한 차량봉사, 노인들 생활의 행복을 위해 매월마다 간단한 식사대접, 기쁨보일러 시공, 노인정 도배, 장판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농촌목회도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장기적 농촌교회의 성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장운영과 주차장·헬기장, 주말농장 및 택지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농촌이 사는 길입니다. 산음교회는 2남평의 땅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쓸만큼의 땅을 주셨습니다. 도시와 농촌교회의 교류를 위해 자연을 배경으로 3백여평의 교회당을 세우고, 기도회, 야유회, 수련회, 소그룹 모임을 유치하면서 전원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립하는 교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0년전부터 묘목사업으로 연산홍 10만주, 소나무 1만주로 장·단기 자립사업을 진행하고 솔잎식품인 효소를 생산해 재정을 충당해 복지목회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외벽은 자연석으로 실내는 대나무, 자연석, 솔방울 등으로 만들어 전원의 향취를 풍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의 정신으로 14년째 이기적인 문명의 부산물인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40여명의 식구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볼때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복지지역은 재정력과 동시에 전문인력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산음교회는 지리적 특성을 잘 살려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크리스천 문화의 보급으로 겨울철 스키캠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산음교회는 전형적 농촌 목회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21세기의 농촌목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용한 변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농촌목회의 어려움의 근원인 재정과 인력을 해결하면서 소망의 꿈을 꾸며 자립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 안성성결교회



▷ 위치 : 경기 안성시 봉남동 347

▷ 담임교역자 : 구자영 목사

▷ 교회 창립일 : 1917년

▷ 교단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교인 수 : 1000명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매화학당(노인교실), 장애아동교육(조기, 방과후), 사회교육(일반인), 물리치료실 운영, 방학 중 결식아동 중식제공 및 공부방 운영, 도서관 운영, 카페운영), 재가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경기도교육감지정 평생학습관,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역조직사업(경로당활성화사업, 학교연계 사랑의 선물주머니운동, 참여복지시민연대조직

안성성결교회는 성결교단의 창시자인 정빈전도자가 경기도 내륙의 복음화를 위해 1917년에 세운 교회로 성결교회내에서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안성교회는 성결교단에서 최초로 장로를 세운 역사적인 교회이며 성결교단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사회적으로는 시인 박두진씨같은 민족의 일군들을 배출한 민족교회이기도 합니다.

안성의 젖줄인 비봉산자락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아래 품듯이 안성을 품고있는 안성교회는 현재 1,000여명의 성도들이 안성이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와 봉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이며 현재는 25대 구자영목사님께서 담임목사님으로 시무하시고 계십니다.

구자영목사님은 “성결성회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실천”이라는 목회철학을 가지시고 1997년 부임하시자 마자 “비전을 행하고 성취하는 교회”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와 가치관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을 온 성도들에게 고취시키셨으며 이에 안성교회는 안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자 기도와 많은 노력 끝에 복지법인 성결원(안성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여 한국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복지사업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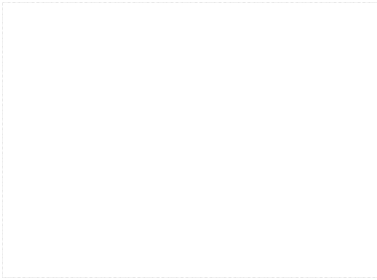
성결원에서 운영하는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타시에 비하여 노인인구비중이 약2배정도나 높은 안성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 어르신에게 섬김을 직접 실천하는 섬김의 장이기도 합니다. 종합복지관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팔목할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위한 매화화당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로 하여금 인생 황혼기에 삶의 큰 의미와 보람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이밖에 지역민들이 복지에 참여 할수 있는 선한이웃 운동을 펼침으로써 안성의 지역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이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들과 지역민들을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간접선교를 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복지관 전경

## ■ 양무리교회



▷ 위치 : 서울 동작구 상도4동 199-27

▷ 담임교역자 : 유소숙 목사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교인 수 : 107명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결손가정 아이들 방과후 공부방 운영(각 과목별 공부, 예배, 성경공부, 찬양, 컴퓨터, 피아노, 간식, 식사 등), 부활절 계란 나누기 및 추수감사절 떡, 과일 나누기(동작구청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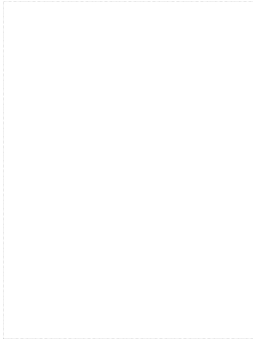
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20개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인근 초·중학교에 8년 동안 방문 전달), 장애인 위로 공연회, 불우이웃 사랑의 쌀 나누기, 따뜻한 겨울나기(김장 담귀 포장하여 전달), 미혼모 병원비 지급, 불우이웃 등록금 지급, 노숙자 위로방문, 매주 지역사회를 위한 치유사역

우리관내 산 65번지에 ‘승리의 집’ 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양무리교회(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26-27)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동 산65번지 일대 지역환경을 소개하면, 저소득층이 밀집된 전형적인 서울의 달동네로 무허가 건물로만 자리를 잡은 지역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수준과 교육정도가 낮아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우범지대)지역이며 가정의 가장 대부분이 막노동을 하고 있고, 어머니들도 생활비를 일부라도 벌고자 맞벌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편부·편모, 알콜중독, 장애인 가정도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청소년들은은 육체나 정서에 구타를 당하거나 방치를 하고 확대를 방지하고 가족, 특히 부모의 무관심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1차원적인 배움에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정서나 내면의 안정을 위해 예배(영혼구원)드림으로 영과 혼이 건강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을 도움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돕고 관심과 사랑을 주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인성교육) 노력하는 곳이 바로 ‘승리의 집’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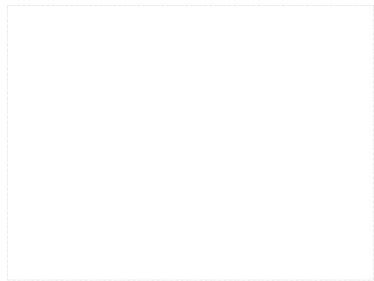
이곳 승리의 집 청소년 선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너희가 여기 네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것이라” (마25:40) 는 말씀에 순종하며 외롭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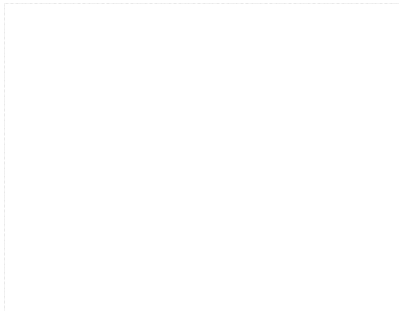
외당한 가운데서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심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새소망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결손가정·비행청소년·가출청소년·불우청소년·가족상담·미혼모등)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입과 동시에 수용함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식주를 제공하고 케어를 하는 쉼터형식의 시설이기도 하다. 승리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무리교회 성도들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실시한

사회복지(교회복지) 프로그램을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방가후 예배·성경공부·찬양·각과목별학과지도·컴퓨터·피아노교습·간식·식사·기타등으로 활동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매년마다 부활절 계란포장하여 5년동안 전도용으로 방문전달하여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통해 복음이 전파될수 있었다. 추수감사주일(떡, 과일) 나누며 장애인 위로공연회와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며 또한 따뜻한 겨울나누기등 김장 담궜서 포장하여 전달하고 미혼모와 장애인 병원비 지급도 하며 불우이웃 등록금 지급과 노숙자 위로 방문하였다.

양무리교회에서는 매주 52주 지역사회를 위한 치유사역(교과초월)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유소속 목사) 만남을 축복가운데 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셨다. 특별히 만남에 축복을 주시어 양무리교회 성도님들과 청소년 선교회 “승리의 집”을 위하여 후원자님들과 봉사자님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의 사역자(동역자)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지역사회 사회복지(교회복지)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양무리교회에 큰비전을 주셨다. 주신 비전위에 큰힘을 주실줄 믿고 양무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양무리교회와 승리의집의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비전위에 기쁨부으심과 감사함으로 사역할 것을 다짐하며 양무리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삶속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님 모시고 힘껏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예산짚풀교회



- ▷ 위치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 342
- ▷ 담임교역자 : 김용필 목사
- ▷ 교회 창립일 : 1992년 3월 1일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 교인 수 : 73명
- ▷ 홈페이지 : [www.nongsai.com](http://www.nongsai.com)    [www.refarm.com](http://www.refarm.com)

▷ 2002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도시 귀농자반(4주 합숙) 생명농업교육, 예산 친환경농업인 환경농업 전문교육(월 1회), 무주택서민을 위한 “사랑의 빈집수리 운동”,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농촌정착교육(통일부 하나원 위탁교육 ; 월1회)

### <농촌 선교 목표>

이농현상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특히 기독교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척박한 불교 문화권에서 복음 전파의 수단은 소외되고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생명농업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농촌의 여러 현장에 전파하여 선교의 결실로 “예수공동체마을”을 조성한다.

## 2. 부설 선교기관 및 선교사업

### (1) (사)더불어살기 생명농업 운동본부

- ① 도시의 실직자·노숙자 및 귀향·귀농·영농 희망자에게 농촌정착 및 영농창업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생명농업교육 기회 제공과 상담 및 지원
- ② 도시 소비자와 청소년을 위한 자연생태 체험학습 제공
- ③ 도·농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 및 판매로 확보와 소비자회원들에게는 친환경적인 건강먹거리 제공
- ④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랑의 빈집수리 운동”을 통한 예산군 인구증가 및 농촌 빈집 수리 및 제공



⑤ 북한이탈주민 농촌정착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알맞는 안정적인 정착 상담 및 지원

(2) 예당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친화적 농업교육을 통한 현지 농업인 환경농업기술 보급 및 친환경농업인 육성

(3) 예산 자활후견기관

예산지역 영세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운영 및 복지증진

(4) 사회복지법인 평강어린이집

소외계층인 영·유아의 교육 및 복지 증진확대 기회 제공



### 3. 기대 효과

(1) 선교사업을 통하여 우상을 숭상하는 예산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며 가장 먼저 교회 인근의 신앙면과 대술면을 전도하여 예산짚풀교회의 출석교인 300명을 목표로 한다.

(2)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마을”을 완성한다.

(3) 어렵고 무관심한 농촌에서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모범목회를 달성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을 드리는 예산짚풀교회를 이룩한다.

부설 선교기관

- (사)더불어살기 생명농업 운동본부
- 예당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예산 자활후견기관
- 사회복지법인 평강어린이집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



# 부 록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 1. 취지 및 목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에서는 교회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해 널리 개방되고, 훌륭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을 통해 공개되어지는 자료와 프로그램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매김 되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 2. 시상내역

- 1) 시상방법 :           ① 서류심사 - 1차 서류 심사(3월 22일 도착 분/토)  
                          ② 현장실사 - 서류 심사를 통과한 교회를 대상으로  
                          ③ 시상일정 - 4월 말 (창립 기념 주간 전후 시상)
- 2) 시상내용 :           전체 9개 교회(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 3) 시상품 :           (1) 교회사회복지 지원금 100만원  
                          (2) 기념동판

## 3. 선정기준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 평가 방법의 활용도,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

## 4. 신청 및 접수 방법 (홈주소 : [www.cemk.org](http://www.cemk.org), E-mail : [giyunsil@cemk.org](mailto:giyunsil@cemk.org))

- (1) 접수기간 : 2월 22일(토) - 3월 22일(토)
- (2) 주 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871-7487, F)883-2177 담당 : 우주온 부장 / 016-237-2614)
- (3) 후 원 : 소망화장품
- (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겉봉투에 ‘사회복지상 신청서’ 표기 요망)  
- 주소 : 서울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151-600)

### ■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소개

- 1) 창 립 : 2000년 4월 24일
- 2) 세 미 나 : 1차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2차 “출판기념회와 세미나”, 3차 “교회시설개방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
- 3) 교육활동 : 기독교 사회복지 아카데미 “사회복지 실천학교” 개설, 교회 및 신학대학 순회강사 지원
- 4) 자원봉사 : 2000년 상도종합 복지관봉사를 비롯하여 기타 시설에 대한 자문 실천 활동 준비 중
- 5) 출판활동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교회시설개방과 복지 그리고 선교”
- 6) 위원소개 :

고 문 : 유의웅 목사(도림교회),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위원장 : 조홍식교수(서울대) 부위원장 : 강영실교수(한국성서대) 총무 : 이영규사장(우리식품이야기)

김 인교수 김동배교수 김혜란교수 김현호목사 두준기이사 맹용길교수 박경숙교수 송시섭변호사 오세란교수 오창섭교수  
유희정박사 윤중호사장 이기영교수 이만동목사 이무영교수 이영분교수 이창희교수 정순돌교수 장혜경박사 최성재교수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신청서

<b>교회명</b>		<b>담임 교역자</b>				
<b>주소</b>		<b>총 교인 수</b>				
		<b>교단</b>				
<b>전화</b>		<b>홈페이지</b>				
<b>담당자</b>		<b>연락처</b>				
1. 노회/속회(총회 또는 지방회)추천서						
소속노회 / 속회 :		노회 / 속회장 :	(인)			
		연락처 :				
2. 지난 1년간(2002년 1월 ~ 2002년 12월) 교회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실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명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3. 위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3가지를 선택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프로그램명	실시기간 및 빈도	프로그램 담당자수		프로그램 수행 지출 비용	프로그램 수혜자수	
		직원수	봉사자수		교인수	주민수
4. 교회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해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V 표해 주십시오.						
(1) 대예배실( ), (2) 소예배실( ), (3) 교육관( ), (4) 사회관( ), (5) 식당( ), (6) 주차장( ), (7) 운동장( ), (8) 수양관( ), (9) 기타 ( )						
- 이러한 시설들 중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고 있는 시설에 V 표해 주십시오.						
(1) 대예배실( ), (2) 소예배실( ), (3) 교육관( ), (4) 사회관( ), (5) 식당( ), (6) 주차장( ), (7) 운동장( ), (8) 수양관( ), (9) 기타 ( )						

5.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별지를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술해 주십시오

(1) 목표, (2) 내용 또는 절차, (3) 파급효과, (4) 평가방법

6.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논의와 결정에 교인과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참여하고 있다면 누구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5)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는지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6) 교인들 중 자원봉사에 참여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7.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시·군·구 단위) 타 기관에서 실시된 적이 있는지요? 예( ), 아니오( )

(2) 타 기관 프로그램과 교회 프로그램이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3) 사회복지담당자의 전공이 사회복지이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사회복지담당자가 사회복지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받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8.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2002년도 결산서 첨부).				
총 예산	사회복지예산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9. 지역 복지관련기관과의 협력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복지관련기관이란 각종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정부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학교, 병원 등을 말함).				
- 지역사회의 복지관련기관과 공동사업을 한 경험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관련기관명	사업명(프로그램명)	참여기간 및 빈도	봉사활동 내용	참여교인 수
<p>(1) 지역사회의 타 복지관련기관과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p> <p>(2) 있다면, 어떤 기관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_____</p> <p>(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p> <p>(4) 있다면, 어떤 협의체입니까? _____</p>				
10. 위 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역사회를 위해 한 활동이나 사업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 최근 주보를 1부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 <신청서 작성 안내서>

**\*\* 위의 문항 가운데 해당되는 것에만 답하고, 모든 문항에 대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의 문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실시를 하지 않는 교회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특별한 사업이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경우, 10문항에 상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의 교회를 선정 한 후,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수상 교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장방문 시 신청서 상에 작성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팜플렛, 영수증, 참여주민명단, 자격증 등 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 노회/속회 추천서는 소속 노회장이 직접 신청서 상에 기입하여 날인(혹은 서명)하거나 또는 별지로 추천서를 첨부하여도 됨.
2. 지난 1년간 교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이름만 적어 넣음.
3.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3가지: 프로그램 담당자란 교인 중에 프로그램을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프로그램 수행자수에서 주민수는 교인이 아닌 주민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을 말함.
5.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대한 질문: 이 부분은 별지를 첨부하여 서술하거나 기존에 발행한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를 첨부해도 됨. 내용 또는 절차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실시했는지 자세히 적는 것이며, 파급효과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적고, 평가방법이란 그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적을 것.
6. 운영의 합리성과 개방성에 관한 질문:
  - (2)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 교인이 아닌 지역주민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
  - (3) 교인이 아닌 지역주민만 적을 것 (예를 들어, 통장, 아파트 부녀회장)
  - (4)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할 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 실시하게 되는지를 적을 것.
  - (5)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지역주민(교인 포함)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 이러한 욕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 알아보는지에 대해 적을 것.
7. 운영주체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대한 질문:
  - (2) 교회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중 특히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되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적어도 되며, 프로그램 명과 그 프로그램의 창의적인 측면을 적을 것.
8.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결산서를 첨부해야 함

담당 : 기윤실 우주온부장(woaju@cemk.org / 02-871-7487)

## 시상식 사진



수상교회 전체 사진 촬영



강북 구세군 교회



대길교회



도림교회



목민교회



봉동 시민교회



안성 성결교회



양무리 교회



예산 짚풀교회





발제 - 강영실 위원



심사평 - 조홍식 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와 간사

## 제 1회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償)

## 시상식 순서지



교회는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운실에서는 교회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해 널리 개방되고, 훌륭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을 통해 공개되어지는 자료와 프로그램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매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시 | 2003년 4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후원 | 소망화장품 **sOmang**  
Cosmetics



## 【 제 1부 - 예배 】

사회 : 이만동 사회복지위원(백석제일교회 담임 목사)

반주 : 김경진 집사

**묵도**

**찬송** - 29장

**기도** - 명예심사위원

**성경봉독** - 요한일서 3장 13-19절

**말씀** - "사랑의 일꾼" 유의웅 고문(도림교회 담임 목사)

**찬송** - 245장

**축도**

## 【 제 2부 - 시상식 】

사회 : 김동배 사회복지위원(연세대 교수)

**인사말** - 이장규 기윤실 이사장(서울대 교수)

**격려사** - 손인웅 고문(덕수교회 담임)

**발제** - 강영실 사회복지위원(한국성서대 교수)

**명예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소개** - 사회자

명예심사위원 : 김남선 사관(구세군), 류태선 목사(예장 통합), 서병하 장로(기성) ,

윤지환 목사(예장 고신), 이재영 목사(예장 합동), 이재호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심사 위원 : 강영실 위원(한국성서대 교수), 김동배 위원(연세대 교수), 김현호 위원(다우리교회 담임목사),

두준기 위원(휴먼테크기술사무소 대표), 오세란 위원(서울기독대 교수), 이만동 위원(백석제일

교회 담임목사), 이영규 위원(우리음식이야기 대표이사), 조홍식 위원장(서울대 교수)



**종합 심사평 - 조흥식 사회복지위원장(서울대 교수)**

**시상 - 복지 사업 격려 후원금 100만원, 동판, 상패**

목민교회(담임 : 김동엽 목사)

대길교회(담임 : 박현식 목사)

대구신암교회(담임 : 윤의근 목사)

양무리교회(담임 : 유소숙 목사)

강북구세군교회(담임 : 박희범 목사)

안성성결교회(담임 : 구지영 목사)

예산짚풀교회(담임 : 김용필 목사)

봉동시민교회(담임 : 김희중 목사)

산음교회(담임 : 김태성 목사)

[특별상] 도림교회(담임 : 유의웅 목사)

**특송 : 대길교회 시내산 찬양단**

**사례 발표**

[1] 예산짚풀교회

[2] 안성성결교회

[3] 목민교회

**광고**

**기념사진 촬영**

**다과와 친교**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함께"**

1. 성도여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 맘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3.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2.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 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 기운실 사회복지위원회 소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신앙의 당연한 실천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계획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도와 주고, 교회 지도자 및 평신도 사회복지학교를 개설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4월에 창립되었다.

1. 창 립 : 2000년 4월 24일

2. 세 미 나 : 1차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2차 “출판 기념회와 세미나”, 3차 “교회시설개방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

3. 교육활동 : 기독교 사회복지 아카데미 “사회복지 실천학교” 개설, 교회 및 신학대학 순회강사 지원

4. 자원봉사 : 2000년 상도종합 복지관봉사를 비롯하여 기타 시설에 대한 자문 실천 활동 준비 중

5. 출판활동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교회시설개방과 복지 그리고 선교”

6. 위원소개 :

[고 문] 유의웅 목사(도림교회),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위원장] 조홍식교수(서울대) [부위원장] 강영실교수(한국성서대) [총무] 이영규사장(우리식품이야기)

김 인교수 김동배교수 김미혜교수 김수정교수 김종일교수 김혜란교수 김현호목사 두준기이사  
맹용길교수 박경숙교수 배은영교수 송시섭변호사 오세란교수 오창섭교수 유희정박사 윤종호사장  
이기영교수 이만동목사 이무영교수 이영분교수 이창희교수 정순돌교수 장혜경박사 최성재교수

7. 발간 서적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대한기독교서회, 2001. 4)



이 책은 기운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에 속한 사회복지 교수, 기운실 실무자, 목사 등 17명이 참여하여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신학적 및 성경적 근거, 사회복지적 근거, 교회 사회복지사업 준비 방법등을 말하고,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삶의 희망을 줍니다



기독교연합봉사단 구성(삼풍백화점), 정신대 할머니 돕기, 사랑의 빵 운동, 나눔의 저금통, '97~'2003 수해지역 지원활동, 북한동포돕기 사업 (사랑의 간염백신, 평화의 젖 염소 보내기 운동)

문화시대에 오염된 대중문화를 감시하고 밝은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스포츠신문 개선을 위한 항의운동, 유해간행물 추방운동, 선정성 광고 시정운동, 유흥업소 심야영업허용반대운동, 불건전 음성정보추방운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운동, 인터넷 음란물 추방운동, 대중문화 모니터운동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탈북자돕기, 외국인 노동자지원, 공명선거운동, 후보자 감시운동, 정책선거중심 캠페인, 국정 감사 모니터 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실업극복 공공정의 실천사업

교회를 돕고,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와 사회복지, 깨끗한 총회를 위한 캠페인, 교회의 좋은 사역모델 찾기,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 활동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실천합니다



검소절제운동, 직업윤리확립운동, 정직한 납세운동,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 검소한 결혼문화 만들기 운동

# 기윤실 운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입니다

정직으로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운동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운동입니다

## 건강가정운동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겨자씨포럼, 생활신학정착캠페인, 건강한 가정 문화 만들기, 김소한 혼례, 장례문화만들기, 절제나눔운동, 순결서약, 낙태반대운동,

## 건강교회운동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교파적인 연대활동을 해 나갑니다

아름다운 교회사역소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교회와 사회복지), 교계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 바른 헌금 운동, 기독교언론모니터, 각교단 총회 모니터, 건전한 기독교문화 형성, 교역자포럼, 대학생NGO포럼, 신학위원회 활동

## 사회정의운동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전개합니다

공명선거운동, 민주시민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정직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 노동자 지원, 탈북자 정착을 위한 지원, 시민사회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 북한에 쫓겨온 보내기

## 문화소비자운동

대중문화를 소비자입장에서 감시하고  
밝은 대안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컴퓨터 음란물 차단 및 추방운동, 불건전 전화정보 서비스 추방운동, 스포츠신문, 간행물 감시운동, 불건전 방송, 광고 감시 및 항의운동, 영상, 음반, 게임모니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운동, 대중문화 수용자교육, 교사미디어아카데미

## 기독교가족상담소

인생의 문제를 겪는 개인과 가족들을  
각종 교육과 상담활동을 통해 돕습니다

전화상담, 면접 상담, 크리스천 카운슬러 교육, 청소년진로, 성(性)교육, 정신재활프로그램, 용서훈련지도자과정, 부부성격 이해 프로그램, 결혼예비자교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기윤실은 건강가정운동, 건강교회운동, 문화소비자운동, 기독교가족상담 활동, 사회정의운동을 전개합니다.

## 당신의 기도와 후원이 기윤실 운동의 뿌리입니다.

기윤실 후원은 은행계좌이체, 자동이체, CMS이체, 지로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cemk.org)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사무처 Tel. 02-878-7263(안금주 간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후원계좌(서울)

국민은행 037-01-0504-979

우체국 012401-01-001137

지로번호 7530353

농협 074-01-121183

우리은행 821-05-002520

(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